

##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2.5)

-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조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%를 기록하였습니다.
  - 이상기후, 국제유가 상승,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입니다.
- 정부는 물가안정이 '민생의 제1과제'라는 인식하에
  - 내일 '민생경제점검회의'를 통해 물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, 안정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.

### [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]

-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, 중국 기업의 덩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
  -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,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.
  - 다만,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한편,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'덩시크 R1'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
  -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,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□ 이처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

- 이에, 오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, 조선,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,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.

□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,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- 먼저, 배터리,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“<sup>가칭</sup>첨단전략산업기금”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습니다.
  -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(17조원)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, 저리대출,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  -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,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.
-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- 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  -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, 이달 중 ‘국가AI위원회’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습니다.

□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.

- 업계가 필요로 하는 「반도체특별법」과 전력·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.

## [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]

□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(Climate Tech)\*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.

\*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모든 범위의 기술(UNFCCC, '16)

-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(채권·융자 등)을 지원하였으나,
  -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,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

□ 이에,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1.5조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.

## [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]

□ 끝으로,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「지역활성화 투자 펀드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펀드 출범 1년 만에, 그간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약 2.5조원의 지역투자\*를 창출했습니다.

\* 투자기간 2년인 모펀드 3천억원 중 1년만에 81.5% 소진

-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천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, 지자체 대상 컨설팅·교육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말씀하시겠습니다.  
(환경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